가족 예능 뛰어드는 정치인들…"친근해지고 싶어"

여의도와 지역구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뛰어드는 정치인이 늘고 있다.

정치인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은 과거의 것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과거에 출연했던 SBS TV '힐링캠프'부터 19대 대선 후보들이 나와 화제가 됐던 SBS 모비딕 '양세형의 숏터뷰',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출연한 KBS 2TV '냄비받침'의 경우 정치인이 일회성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포맷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부인 김혜경씨의 출연을 예고한 SBS '동상이몽' 시즌2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아들 대명씨가 등장하는 tvN '오늘부터 독립-둥지탈출'은 가족이 노출되고,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녹화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돌발 상황이나 발언도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 시장 '동상이몽' · 기동민 의원 '둥지탈출'
과거와 다른 '게스트→고정' 새로운 포맷 진화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 'SBS스페셜'에 출연해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들을 노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동상이몽'은 부부의 생활상을 관찰 카메라에 담고,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코멘트하는 방식이다.

첫 방송은 이달 중으로 예정됐다.

15일 처음 전파를 타는 '둥지탈출'은 유명인사 부모의 자녀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담는다.

자녀들은 네팔에서 촬영을 마쳤고 부모들은 이달 초 스튜디오 녹화에 참여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구설에 오르기 쉬운 정치인이 관찰 버라이어티 성격의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출연 제의를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일정도 있었고, 일부 참모의 반대도 있어 망설였다"며 "그러나 최근 일정에 조금 여유가 있는 데다, 저의 평소 공격적이고 터프한 모습 외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치인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과하지 않은 예능은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집안도 몇몇 참모 빼고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침실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정치인으로서 예능 출연은 역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특히 가족이 노출되다 보니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뭐든지 권하고 싶었다"며 "정치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지만 국민께 다양한 방식으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가에서도 정치인들의 관찰형 가족 예능 참여 트렌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정치인이 권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리얼리티 프로의 장점을 살려 대중이 궁금한 정치인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대중과 같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흑역사 or 인생작…'하백의신부' 어떻게 기억될까

확실히 새롭고 또 놀랍다. tvN 새 월화드라마 신(神)므파탈 로맨스 '하백의 신부 2017'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 뜨거운 화제를 모은 이유에는 배우들의 놀라운 분장과 비주얼이 한 몫 했다. 만화적 설정과 상상력에서 시작된 '하백의 신부'는 이 놀라운 분장마저 설득시킬 수 있을까.

3일 처음 방송되는 '하백의 신부 2017'(연출 김병수/ 극본 정윤정)은 인간 세상에 온 물의 신(神) 하백(남주혁 분)과 대대손손 신의 종으로 살 운명으로, 극 현실주의자인 척하는 여의사 소아(신세경 분)의 신므파탈 코믹 판타지 로맨스다.

티저 영상에서 예고된 것과 같이 드라마 초반에는 '신계'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에서 배우들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초록색 헤어스타일과 기묘한 의상을 입은 남주혁, 그에 못지않은 이경영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다. 마치 개그 프로그램의 콩트 한 장면같은 느낌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그동안 판타지 장르를 덧칠한 어느 드라마도 시도하지 않은,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표현방법이다. 다른 드라마에서는 분장보다는 현실에 CG를 덧칠하는 정도로 표현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되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하백의 신부'에 쏠린 관심이 웃음으로 이어질지, 신선한 시도로 해석될지는 결국 이 작품이 보여줄 이야기에 달렸다. '하백의 신부'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지만, 제작진은 원작과 완전히 다른 '스핀오프' 버전의 현대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작 만화의 고전적 판타지와 인물들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설정과 이야기를 그렸다는 것.

배우들의 미모와 파격적인 분장 등 역대급 비주얼을 자랑하는 '하백의 신부'. 이 비주얼을 설득하는 것이 첫 관문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갖춘 판타지 드라마로 자리잡을지 궁금해진다. 3일 오후 11시 tvN 방송.

'최단 4천만뷰' 블랙핑크, 매일매일 신기록

블랙핑크가 '또' 일을 냈다. 신곡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K팝 남녀 그룹 역대최간인 9일여만에 4천만뷰를 넘은 것. 괜히 '신기록제조기'라 불리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오늘(2일) 오전 6시 기준 유튜브에서 4천만 814뷰를 돌파했다. 이는 그동안 그 어떤 국내그룹들이 해내지 못한 기록이다.

블랙핑크는 '마지막처럼'으로 컴백과 동시에 연이어 신기록들을 세워왔다.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하루가 채 안된 17시간 만에 1천만뷰, 이틀째인 47시간 만에 2천만뷰, 공개 4일 반만인 107시간 만에 3천만뷰를 넘어섰다.

이윽고 블랙핑크는 9일 12시간 만에 4천만뷰를 돌파, K팝 남녀 그룹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에 4천만뷰를 찍는 저력을 뽐냈다.

블랙핑크는 이미 단 두 장의 싱글만으로도 괴물신인의 위엄을 과시한 바 있다. 각종 차트를 휩쓴 것은 물론 '붐바야' '불장난' '휘파람'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돌파했다.

데뷔 8개월만에 1억뷰 뮤직비디오를 3개씩이나 보유하게 된 것으로, 신인으로서 최초이자 최단 기록이다.

또한 뮤직비디오 조회수 뿐만 아니라 해외차트에서도 블랙핑크는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국내 차트를 점령한 블랙핑크는 중국 최대 음악사이트인 QQ뮤직에서도 종합 신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QQ뮤직은 월 사용자가 4억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이어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사상 최초 단일 싱글로 해외 18개국 아이튠즈 1위,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붐바야', '불장난'에 이어 3번째로 1위를 달성했다. K팝 걸그룹으로서는 최초이자 최다 기록이다. 여기에 미국 애플뮤직 'Best of the Week'에 선정되는 등 데뷔한지 1년도 안된 신인으로서 놀라운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블랙핑크는 떴다하면 '최초, 최단, 최고' 기록을 이뤄내고 있다. 블랙핑크의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하는 셈.

블랙핑크는 아직 특별한 해외 프로모션, 공연도 없었지만 두터운 팬덤과 인기는 여느 선배그룹 부럽지 않다. 이달에는 일본 데뷔까지 앞두고 있는 블랙핑크가 얼마나 더 놀라운 그룹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풍자는 'SNL'처럼 예능은 에이핑크처럼

웃음도 잡고 풍자도 했다. 예능에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에이핑크가 tvN 'SNL9'와 함께 보여준 호흡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제작진은 에이핑크를 섭외, 영리하게 활용하며 웃음과 풍자 두 마리 토끼를 야무지게 잡았다. 오죽하면 풍자는 'SNL'처럼, 예능은 에이핑크처럼이라는 말도 나온다.

올해로 데뷔 7년차인 걸그룹 에이핑크. 예능감이 제대로 물올랐다. 지난 1일 tvN 'SNL 코리아 시즌9'에 출연해 프로그램을 뒤집어 놓은 것. 콩트의 신, 신동엽도 인정했다. '더빙극장'의 원조 권혁수도 견제할 정도.

이날 에이핑크는 자신들의 히트곡 메들리로 오프닝을 장식했다. 그리고는 데뷔 전 부레옥잠, 씨펄, 망고, 걸X로 데뷔할 뻔했다며 팀명 후보들을 공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모든 걸 내려놓은 모습. 능청스러운 콩트 연기부터 막강한 분장 개그까지. 털털하고 소탈한 매력을 개그로 오롯이 승화해 관객들과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압권은 '더빙극장'이었다. 만화 '아기공룡 둘리'를 주제로 보미는 마이콜을, 은지는 둘리를, 남주는 도우너를, 권혁수는 고길동으로 변신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능글맞은 더빙 연기가 꽤나 인상적.

보미는 걸그룹으로서 쉽지 않았을 파격 분장을 소화하면서 제대로 망가졌다.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본인이 신나 망가지는 개그는 보는 이들의 흐뭇함까지 자아낼 정도.

그동안 수많은 호스트를 맞이한 신동엽은 "1차 공연에 생방송까지 하면서 크루들끼리 '에이핑크 진짜 잘한다, 머리 좋다, 센스 좋다'고 감탄에 감탄을 계속 했다. 계속 바뀌는 내용을 잘 따라하고 재밌게 하는 걸 보니 좋았다"고 칭찬했다.

유세윤 역시 "이렇게 방송을 길게 한 건 처음이다. 에이핑크 멤버들이 워낙 잘하고 재밌어 하니까 생방송을 길게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웃음과 함께 풍자도 놓치지 않았다. 트렌드에 강하고, 세련된 아이디어가 넘치는 프로그램. 유머러스한 패러디에 날카로운 정치 풍자, 사회적인 문제점까지 꼬집는 과감함이 발군이다. 넘치는 유쾌함을 바탕으로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함까지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공개 코미디 장르가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호평은 좀 더 값지다. SBS '웃찾사'는 방황하다 결국 막을 내렸고, KBS 2TV '개그콘서트'는 시청률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 최근의 'SNL 코리아'의 성공은 공개 코미디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음력 5월 10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미련을 버려라.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소띠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호랑이띠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토끼띠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용띠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뱀띠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마라.

▶말띠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양띠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원숭이띠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닭띠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개띠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돼지띠 3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